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2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10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 전문성 향상에 기여 커

2005년부터 역점추진 연평균 3000여 명 수강

올해로 운영 10년을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수강생이 3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아카데미' 수강인원이 2014년 7월 현재 3,2345명에 이른다.

'사회복지 아카데미' 의 시작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3대 이동한 회장 취임시 교육훈련 사업을 역점추진과제로 설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단순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를 위한 교육예산 부담이 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보편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사회복지현장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부터 기존 교육사업을 확대, 정례화하는 '사회복지 아카데미' 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이 건립되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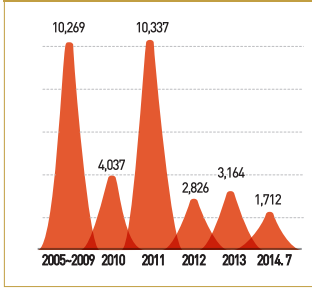
다양하고 전문화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아카데미' 는 매해 큰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발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손꼽히는 등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부장은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초기만 하더라도 교육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겨우 빌린 교육장도 해당 기관의 자체행사로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며 "현재 협의회 회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안정적인 교육장 마련에 대한 절실함이 컸기 때문이며, 회관 건립 이후 사회복지 아카데미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던 해인 1986년 1개 분야 101명에 불과했던 교육훈련사업은 '사회복지 아카데미' 개설 이후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현재 수강생 규모가 300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연 평균 30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사회복지 아카데미' 를 수강한 셈이다.

☞(2면으로 계속)

사회복지아카데미 수강인원



▲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교육의 일환으로 김미경 웰펌 공동대표를 초빙하여 '사회복지조직의 의사소통' 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제주출신 소녀가 이룬 작은 기적

제주출신 여고생(한수영, 청심국제고 2)의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화제다.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지역사회와 기업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내 '웃뜨르 바리스타 교육장 및 저지리마을 카페' 를 오픈하게 됐다.

교육장과 카페를 만드는데 한경면 지역주민들은 건물을, 유명 커피전문기업에서는 교육설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가들은 작품을 기부했다. 카페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여고생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룬 복지시설과 마을, 기업이 이루어낸 작은 기적이 '협치' 의 가능성을 미리 선보이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울림'

「2014 제주 사회복지 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대회개요

- 일시 : 2014. 9. 27(토) 16:00
-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예정)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내용 : 사회복지 합창단(7개팀) 합창경연

시상내역

시상부문	시상내용	시상팀
5개 부문	2,900천원	8개팀
금 상	상장 및 상금(1,000천원)	1팀
은 상	상장 및 상금(500천원)	1팀
동 상	상장 및 상금(300천원)	2팀
장 려 상	상장 및 상금(200천원)	3팀
아름다운 울림상	상금(200천원)	1팀

(※ 아름다운 울림상 : 관객반응이 가장 높은 합창단에 수여)

세부내용

| 참가자격 | -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운영 중인 합창단(7개팀 초과시 예심 시행)
- 합창단원이 15명 이상(지휘자, 반주자 제외) 구성되어야 함.
- 성악전공자인 경우 2명까지만 참여 가능(지휘자, 반주자 제외)

| 경 연 곡 | 지정곡 1곡(다시 일어나요, 숨바꼭질 중 선택)
자유곡 1곡(사회복지의 의미를 담은 곡)

※ 지정곡 악보와 참가신청서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www.jejubokji.net) '공지사항'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참가확정팀에게는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자유곡 악보, 단체사진 1매

| 신청기간 | 2014. 7. 24(목) ~ 8. 1(금) 17:00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 접수(jejubokji@hanmail.net)

문의 _ 도사회복지협의회 ☎ 064-702-3784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의

원희룡 지사, 김희정 장관과 정책 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와 지난달 23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가족정책 사각지대 해소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협약 과정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통합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정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위탁아동 여름나기 프로그램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9~20일까지 서귀포시 법환동 인근 리조트 등에서 서귀포시 위탁아동과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함께하는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와 사회성 및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획됐다.

☞(1면에서 계속) 사회복지아카데미 수강생들은 행정실무교육, 프로포절 작성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했으며, 최근 진행된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를 비롯해 인문학 강의, 팟캐스트 제작실무, 홍보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교육에 대해서도 참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경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은 "사회복지아카데미를 통해 사회복지 실무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의 의사소통과 슈퍼비전, 네트워크 활성화' 강좌는 실무업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짚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좌 과장은 "앞으로 교양강좌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적 이수 교육 과정도 교육과정에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 양은심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이나 직능단체서도 양질의 수준높은 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에 사회복지아카데미도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수준과 품질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 욕구를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개별 교육사업 시행기관 및 단체들과 상생의 관계를 맺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 사회복지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푸드마켓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7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애호박등채소 23개, 잎채소 7.5kg ▲금강수산유통=생선 39kg ▲금강축산유통=육류 540kg ▲김치원=김치 40kg ▲동원F&B제주=식재료 87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25모, 콩나물 195봉 ▲여성단체협의회=생필품 495개 ▲이든이네=멸치 10.5kg ▲자연드림이도점=빵 176봉 ▲제성상회=순대 20kg ▲제주보리촌=보리빵 45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449봉

제주사랑티켓 '관람후기작성' 이벤트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상범)은 오는 12월 말까지 제주사랑티켓 '관람후기작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제주사랑티켓에 대한 도민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관객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제주에서 사랑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관람후기를 사랑티켓(www.sati.or.kr) 및 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에 올리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향후 재단은 제주사랑티켓 참가작 공연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즉석사진 촬영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중증장애인생산품 현대백화점 입점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달 25일부터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제주산 청정나눔세트'를 판매중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푸른제주 농산물'은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씻고 건조시켜 만들었으며, 고사리(80g) 2팩, 무말랭이(200g) 2팩 세트와 고사리(80g) 2팩, 취나물(80g) 2팩 세트 그리고 고사리, 무말랭이 1팩을 담아 판매한다. 판매제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일배움터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왔으며, 이번 판매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초록우산 부모교육 '키울 맘 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울맘 난다'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교육은 '부모됨'을 주제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랑하기'와 '가르치기'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커플 3쌍 합동결혼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고은실)는 지난달 7일 제16회 제주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3쌍이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웨딩마치를 올렸다.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640,000	0
난치병환아후원	90,000	0
자원봉사후원	410,000	410,000
복지사업후원	1,490,000	415,500
푸드마켓후원	2,885,000	4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 · 4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 하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고통을 자비로써 구제해 주는 천수관음보살을 생각합니다. 천수관음보살의 손과 같이 구석구석, 세심하게, 마음을 담아 그늘진 곳에 희망을 주는, 개인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통해 작은 불씨를 일으키는 온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등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변화로 복지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 관광객, 이주민 등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제주사회가 다양화되는 만큼 '제주형 복지모델' 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복지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각 부문별 민간 활동이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복지모델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대응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양육과 재활·교육·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 지원시스템 구축, 광역치매센터 설립 운영과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을 약속드립니다. 이밖에, 조손가정·이혼가정·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시행,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대책 마련, 먹거리 교육과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추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밀착된 복지 서비스들은 수요자의 침상 앞, 방문 앞, 동네 앞까지 갈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핵심이며,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 석 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을 실현할 기회를 주신 제주도민들과 제주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두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를 실현하여 소외된 분들이 없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특별도' 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라는 것이 수요는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 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 전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99.7%로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정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재원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교육' 은 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외에 무상교육 및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의 사업은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교육에 있어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서서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역할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을 '아이들의 행복' 이란 결실로 만들 분들은 바로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 협력이 없으면 제주교육이 몇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 협력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임을 약속합니다. 도민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오직 아이들의 행복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복지와 안전 추구

현 정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주시 지역 여성의원 1명과 더불어 도내 최초의 여성 지역구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제10대 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되면서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어 기쁨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안전위원회는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소방, 자치경찰, 보훈, 여성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그리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며, 예산으로는 복지부문이 본 예산 대비 21%가 넘는 7500여억원에 이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또한 1300여억원, 보건의료 440여억원에 이르는 등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막중하다 못해 결연한 마음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여파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복지안전망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 등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생활 속 복지와 안전' 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도내 최초 지역구 여성의원에게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 또한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와 안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섬세함과 자상함, 그리고 제주여성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생활정치', '민본의회' 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제2차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회공헌활동 전개

주)이랜드파크(대표이사 강성민)는 지난달 17~18일 1박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함께 ‘제2차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랜드파크 직원자원봉사자들이 서귀포시 대천동 및 예래동,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40여명을 켄싱턴 제주 호텔(총지배인 이윤규)과 켄싱턴 리조트 서귀포점(총지배인 김광인)으로 초대해 레크리에이션, 공연관람, 호텔뷔페, 숙박 현장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업은 (주)이랜드파크가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이랜드파크 4개 지점(켄싱턴 제주 호텔, 켄싱턴 리조트 서귀포점·한림점, 한국콘도 중문점) 직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월1회 도내 소외된 이웃을 이랜드파크의 호텔&리조트로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식사, 숙박, 문화행사, 직업체험 등을 하는 행사이다.

소/식/마/당

‘섬 마을 선생님’ 재능나눔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지난달 4일 신라면세점 지원으로 ‘섬마을 선생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재능기부봉사단과 함께 우도를 방문해 노인분들께 이·미용, 상담, 주거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섬 마을 선생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자원봉사단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한라대 봉사동아리 세미나 개최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봉사동아리 **제주한라유니콘**(회장 장창옥)은 지난 6월 28일 한림읍 금릉리 일성콘도에서 전반기 동아리 활동평가 및 회원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교수 및 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아리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격려상 수상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3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에서 실시하는 우수사례발표 및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13곳이 참석해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격려상을 수상했다.

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 개최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가 주관하는 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가 지난달 10~11일 금호리조트에서 열렸다.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 유진주간활동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솔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자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물놀이와 공연관람, 레크리에이션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초록과 함께하는 즐거운세상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중증장애인 부적응행동 감소를 위한 힐링원예활동 프로그램 ‘내가그린(green) 내 마음 속 힐링’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원예치료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전시돼 있으며, 이용 장애인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뿌듯해 하고 있다고.

정은경 원장은 “이 사업이 지역민의 장애인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 필리핀 음식문화 체험 제공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6월 25일 복지관 로비에서 필리핀 음식을 제공했다.

필리핀 음식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실시한 ‘다문화 봉사자가 만든 필리핀 음식’ 행사는 필리핀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 ‘나필’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음식봉사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무료급식과 함께 진행돼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랑의 묵주만들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현성훈)는 직업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비즈 및 목공예 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비즈 작업은 꾸준한 묵주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도내 성당 12곳에 주문 및 납품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재료구입 및 비즈 작업에 참여한 이용자 훈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7일 북촌리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행복지킴이 강사의 지도하에 열린 이번 교육은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험 일일나들이 떠나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5일 전세버스운전자협의회의 지원으로 문화체험 일일나들이를 떠나 아쿠아플라넷 제주 관람 및 허브동산에서 족욕체험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두현 원장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아라하모니합창단 발대식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일 제주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아라하모니합창단 발대식 및 발표회를 가졌다.

아라하모니합창단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의 세부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라동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합창단은 현재 아라동거주 어르신 15명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모아 주1회 제주도립합창단 단원 문순배 지휘자의 지도아래 아라 복지관에서 연습 중이다.

전국 장애인수영대회 '제주 종합 2위'로 마무리

지난달 12일 제주종합경기장 내 한라수영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회장 임태봉)과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최한 '제 8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부산광역시가, 제주도장애인수영연맹이 2위를, 공주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이 3위를 차지했다.

'2014 JEJU 전국장애인 뮤직페스티벌' 성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센터장 최희순)는 지난달 4일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2014 JEJU 전국장애인뮤직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뮤지션과 지역 뮤지션들이 모여 창작곡, 휠체어댄스, 가요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다.

아름다운 도전 제주 희망걷기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회장 유영신)는 지난 6월28일 '차별 없는 세상 우리들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희망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자현, 해인어린이집과 서홍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출산용품 및 장난감 무료 대여 사업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는 출산용품 및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한다.

도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취약계층여성들의 모성권 보장 '아이엠마더'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내 출산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여물품으로는 유모차, 유축기, 카시트 등의 출산용품과 자동차, 미끄럼틀 등 100여종의 장난감이 구비돼 있으며, 동부지역 출산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가능하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찾아와수다' 가파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가파도를 방문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통기타, 색소폰 연주, 네팔 전통춤 공연, 건강 댄스,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공연 서비스를 비롯해 어르신 노래자랑, 새치염색, 수지침, 복지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9개 회원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어울림볼링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1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2014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당사자 30명, 비장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했다.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판촉물사업 실시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8월부터 신규 판촉물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지원으로 기념품 인쇄용 실크 인쇄기 2대를 구입함에따라 수건과 볼펜 등 다양한 기념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 모심냥 가꾸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 '생태텃밭 모심냥 가꾸기' 사업을 체험했다.

이날 참석한 아동들은 초록색 식물과 알록달록한 다양한 재료들을 보고, 만지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드림과 어울림' 치매프로그램 실시

상명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시설 **혜주원**(원장 김용대)은 '두드림과 어울림'이라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가락 장단에 맞춰 전통악기인 장구를 두드림으로써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고,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예방하며, 직원과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졌다.

저소득 조손가정 학습멘토링 지원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김익남)은 지난 4월부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조손가정 아동을 '멘토-멘티' 관계로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

칼럼

복지위원협의체 적극적 활동 있어야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사업실패나 실직·질병 등으로 한순간에 수렁에 빠진 사람, 버림받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등.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는 곳마저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여인숙·여관이나 컨테이너, 창고 등에 임시 거주지를 두면서 생활을 전전한다. 먹을 것조차 변변찮은 위기의 가정들이다.

'주는 복지' 에서 '상생의 복지' 로

그렇다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정보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적 복지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행정당국은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접 찾아나서는 일을 하고 있다. 민관으로 구성된 읍·면·동별 복지위원협의체가 그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과 조례를 만들었다.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복지위원협의체는 2012년 11월 사회복지기본조례 개정으로 본격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 5~15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활동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비는 지급되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복지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생계비나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나 편의점, 개인 등의 후원자를 찾아 서로 협약을 맺어주는 일이다.

이는 그동안의 공적 복지에 의존했던 '주는 복지' 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의 복지' 를 병행해 '상생의 복지' 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원의 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협의체에 맞는 특색 필요

지난해 활동실적을 보면 읍·면·동별로 10여 건에서 30여건 정도에 이른다. 이들 실적 대부분은 읍·면·동 담당부서에 의한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소외계층과 기부자를 발굴해 후원협약을 맺어주는 일이 주된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홀로 사는 어르신 생일잔치, 전기안전점검 등 다양하다. 또는 물품을 모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복지위원협의체에 대한 활동방향과 주된 일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협의체에 맞는 특색 있는 색깔을 하루빨리 찾아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아시나요?

김근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에 전면 도입, 청소년 인성개발 사업 확대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여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을 체험하고, 인성을 쌓는 등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주최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2013년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 사고, 2012년 국토대장정 폭력사건 등을 비롯해 15년 전에는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등 참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거나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안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면 프로그램 적정성, 종사자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정보 제공 및 공개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에가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시작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운영 또는 보조자가 될 수 없으며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은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인 경우,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론

원희룡 도정의 복지 협치, 제대로 천착되기를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오래된 기억이다. 한 십여년 하고도 좀 더 되었으니. 지금은 물 건너갔지만 한라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갈등이 첨예했던 때였다. 제주도에서 장애인단체에 전화가 왔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입장의 성명서 내달라는 것이다. 제목까지 꼭 집어 뽑아주었는데 '장애인도 한라산에 가고 싶다.' 내 기억으로는 모장애인단체에서 적극 찬성 입장의 성명서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요구가 그때만 있었을까.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 중 도민 찬반으로 여론이 양분될 때 복지단체와 시설에 관입장에서 서서 지지를 요구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일까. 예산지원처이고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주종 관계가 애초 형성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서로 간 정치적 공생관계가 일부 맺어져 있었던지. 복지현장에서 관치의 생생한 예이다. 원희룡 도정은 관치가 아닌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 도민이 함께 하는 수평적 협치,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관치(통치)에 익숙했던 행정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도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개발과 환경정책, 각종 갈등과정의 조정과정, 도민복지 구현방안을 찾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협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

관치가 아닌 협치의 의미를 살려야

복지의제에 협치 형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형식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통해 도민복지의 중요사안을 심의하거나 결정하여 실천한 적이 있는지, 1년에 단 한번 개최하고– 혹은 단 한 번도 없거나– 도정홍보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참석하는 우린 어떤가. 광의적 도민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위한 제안 창구로 활용하기보다 협의적 시설, 단체의 보전 주장에 급급해왔던 것 아닐까. 또한 행정의 일방적 협력부대는 아니었을까. 그런 태도로 인해 도민들이 복지는 실업,양육, 돌봄, 주거, 건강 등 나의 삶을 관통하고 직결한 문제로 공감하기보다 당신들 간의 이야기로 보게 한 것은 아닌지, 역시 생각해 볼 일이다. 원희룡 지사는 협치공간으로 '협치위원회' 를 두겠다고 하고 있다. 도민의 보편적 복지의제를 생성하고 복지총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협치의 길' 이 제대로 천착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제25회 전도 초·중·고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수상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5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 를 개최했다. 지난 4~5월 공모와 심사를 걸쳐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작품 중 글짓기 최우수 및 우수작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함께 하자

|비장애부분 최우수상| 정유진 (노형중학교 2학년)

이번 글짓기를 통해 준비하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장애의 정확한 의미조차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장애' 란 '신체나 정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라고 사전에 나와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이 의미만 충족시키면 전부 다 장애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 보면 안경만 써도 시각 장애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장애' 란 말이 쓰이는 경우는 '정치적 올바름' 을 준수한다면 서술하지 못할 그 '특유의 느낌' 이 있다고 했다. 사실 나도 이제까지 경험상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장애' 라는 말이 왠지 말하기 미안하고 듣기도 기분 나쁜 그런 나쁜 말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잘 안 쓰게 되고 '장애인' 이라는 말도 함부로 말하기가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장애우' 라는 말이 생겼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른 '장애인' 에게 '장애우'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애우' 를 풀이하면 '장애를 가진 친구' 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친구면 나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 라는 말이 그 '특유의 느낌' 이 없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들이 없어져야 '장애' 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장애를 우리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이런 작은 차별들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오해와 더 큰 편견들이 생기는 것이다. 틀렸다는 것은 우리만 맞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재능발견과 발전을 가로막는 오를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벽들을 모두 깨면 우리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고정관념,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따뜻하게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주어야 한다.

또 우리도 어느 한 순간의 실수로 '장애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지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열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심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우선 나는 중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다가가야 한다. 근데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겐 그런 '용기' 가 부족한 것 같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게 잘 못한다.

나는 처음 장애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도 있었고 편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편견이라는 무서운 가면을 벗으니 그냥 어느 부분이 아픈, 다친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 아프다는 것과 다치다는 것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점점 열어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들다워질 것이다.

또 그들의 고통과 고됨, 슬픔을 나누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도 같이 나무면 두 배가 될 것이다. 물론 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고 그동안의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그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까짓 용기 내보면 되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듯한 시선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이 따듯하게 느껴지도록. 용기를 내고 말해보자.

마음을 여는 한마디. "함께 하자!"

파란하늘에 쪽빛 물들다

|장애부분 최우수상| 오범근 (제주동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개별화교육실 친구, 누나들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다. 그런데 학급 친구들과는 더 친해져야 될 것 같다. 4월이 되어 나는 개별화교육실 친구들과 현장학습을 갔다.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버스를 타고 갔는데 천연염색을 하는 곳이었다.

체험장에서 나는 감물이 있는 옷감을 문지르고 비벼서 거품이 나게 한 후 햇빛이 드는 곳에 널었다. 무늬를 내기 위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감을 집고 부채무늬를 냈다. 무늬를 만든 후 먹물로 색칠했다. 감염색이 끝난 후 쪽염색을 하였다.

친구들과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기 위해 봉규와 한 조가 되어 서로 잡아주면서 무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다이아몬드 무늬를 완성하였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큰 항아리 속으로 옷감을 넣어 주물렀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었지만 선생님이 참고 하면 멋진 무늬가 있는 염색천이 완성될거라고 해서 참았다. 시간이 지나자 연두색 빛이 나는 옷감으로 변했고 선생님이 항아리에서 꺼내신 후 무늬를 내기 위해 묶은 고무줄을 풀라고 하셨다.

고무줄을 풀고 옷감을 펼친 순간 멋진 다이아몬드 무늬가 나타났다.

경민이와 함께 옷감을 펼치고 넓은 마당에 나가 '펄럭펄럭' 흔드니 연두 빛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색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파란하늘, 파란 빛깔
파란 다이아몬드 세상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세상
파란 하늘을 만지고 싶다.
내 마음이 환하게 피는 것 같았다.
이 파란 빛깔처럼 친구들도 나도 모두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온 세상이 쪽빛처럼 파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쪽빛 무늬처럼.....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비장애부분 우수상|

고훈범 (일도초등학교 3학년)

예쁜 동그라미
멋진 세모
튼튼한 네모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동그라미
넘어질 것 같이 절하는 세모
마른 네모가 있어요.

예쁜 동그라미로 햇님 그리고
울퉁불퉁한 동그라미로 구름 그리고
멋진 세모로 뽀족한 지붕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이 절하는 세모로 깃발 그리고
튼튼한 네모로 커다란 트럭 그리고
마른 네모로 날씬한 사람 그리고

도형들이 서로 도와주니까 이렇게 멋진 그림을 완성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6) - '달님사랑봉사단을 만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몽생이기자단은 지난 7월 제주정신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달님사랑봉사단을 찾아갔다.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 이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진하여 봉사활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몽생이 기자단 2기는 정말 행복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달님사랑봉사단을 찾아갔다.

그동안 더위에 지친 듯 시원한 비가 한바탕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달님사랑봉사단이 한 달에 한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주정신요양원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날이라 봉사활동을 오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도착한 제주정신요양원은 이미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예쁜 앞치마를 입고 손에는 걸레를 하나씩 움켜쥐고 있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 1학년 달님반 16명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봉사단 이름을 '달님사랑봉사단' 으로 정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다가 제주정신요양원에서 생활관 청소, 안마하기, 피부마사지, 네일아트와 간식제공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친구,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우애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

제주정신요양원 배움터 가족들이 제주정신요양원을 찾는 봉사단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봉사단이고 달님사랑봉사단을 기다리며 반갑게 맞이해준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도 배움터 가족들을 할머니처럼 대하는 모습에서도 배움터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공존하는 삶을 배운다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

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기부나 어른들에 대한 배려를 하게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정신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 이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할지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철학자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처럼 오늘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작은 나눔부터 실천하면서 보다 큰 행복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봉사 함께 합시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⓬

가정폭력 피해자 A씨를 도운 사례

양 영 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A씨는 17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계속되는 의처증,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살고 있었다. 남편은 수시로 지갑과 신분증을 빼앗고, 핸드폰 검사를 하였다. 한 달에 술값이 3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상담 당시 A씨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였고,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연계를 통하여 이혼 절차 등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면 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에 관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A씨의 경우 남편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밝히고,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폭행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알렸다. 우선, 상해진단서 등 가정폭력피해사실확인서와 기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A씨가 가지는 것으로 진행하되, 향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A씨가 무료로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혼을 통한 해결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녹음, 진술 등이 필요하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 중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0조).

INFO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